

# '창건 1500년' 세계로 나아가는 선운사

## 19~20일, 선운문화제 개최... 미국 측과 MOU 체결

### 송광복지관, 새 관장 도제 스님 취임

창건 1500년을 맞은 고창 선운사에서 문화제가 열린다.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는 9월 19~20일 '선운사 1500년 그 역사의 향기를 말한다'를 주제로 제2회 선운문화제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보은염 이운행사, 전통차 시음, 농산물 직거래 장터, 산사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비롯해 '석전영호 대종사(박한영 스님) 유묵 특별전'과 '석전 영호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망하는 학술세미나도 열린다. 또, '석전 영호 대종사 자료집'도 발간된다.

동화 스님의 한지 공예전은 19~27일 '한지로 피운 연화세계'를 주제로 만세루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전에 전시될 작품은 수납장, 등, 탁자, 수반 등 일상에서 사용되는 작품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모든 작품에 불교의 세계를 상징하는 연꽃문양과 달마다사 그림을 넣어 '일상이 곧 연화의 세계'임을 상징하는 작품을 강조했다.

한지공예전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일)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에 전달된다.



8월 27일 템플스테이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과 미국측 관계자들.

전통차 시음 행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다서인 <부풍향차보>에 기록된 선운사 차를 만날 수 있다.

19일 오후 7시부터는 '선운사의 사계'를 주제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음악회에는 국악가 오정혜씨와 가수 이선씨 등이 출연한다.

20일 오후 12시 30분 일주문에서 시작되는 보은염 이운행사와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는 마당극 '검단 산사와 1500년 은혜 깊은 소금 이야기'는 또 하나의 볼거리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선운사 대강당에서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학술세미나는 해남 스님(통도사 울주)의 기조강연 '석전 영호 대종사의 강행과 제자들'을 시작으로 △ 석전 영호 대종사의 불교사상과 유신운동(노권용 원광대 교수) △ 석전 박한영의 문화와 사상(김상일 동국대 교수) △ 석전 박한영 스님의 항일운동과 그 활동(오경후 동국대 외래강사) △ 석전 영호 대종사의 계승

사상(호탄 스님, 운문사 승가대학교 교수) △ 석전 영호 대종사의 선사상(김호국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이 발표된다.

한편, 선운사는 템플스테이 국제문화교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국제화에 나섰다.

선운사는 마이클리 선운사 국제문화교류 미국 총책임자와 제임스 프라이스 북태평양 철도노조 부위원장 겸 교육담당이사 마사 T 몽고메리 버클리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등 미국측 관계자들과 선운사 템플스테이 국제문화교류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의해 2010년월부터 외국학생들이 선운사를 찾아와 템플스테이에 동참하게 됐다.

법만 스님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템플스테이의 본래 목적인 외국인인을 위한 불교문화체험에 노력할 것"이라며 "내년 템플스테이 전용관이 건립되면 해외동포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내·외국인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063)561-1422

조동제 전북지사장 ·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지역 불교계의 가장 큰 복지시설인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새 관장에 도제 스님(前 원각사 주지)이 취임한다.

취임을 앞두고 있는 도제 스님은 "불교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산사에 지내다 도심으로 나와 보니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았다. 앞으로 이들을 도와주는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특히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노인수급자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봉헌이 관심을 기울이기 바란다"며 "불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외받는 이들에게 후원자, 자원봉사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사회복지재단 송광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문을 열었다. 유아원, 노인정, 방과 후 아동공부방, 재가복지봉사센터, 광산구 푸드뱅크(Food Bank), 송광주간노인보호소, 광산구 송광자활후견기실, 송광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을 잇따라 개설하면서 광주지역 가장 큰 종합복지센터라고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어르신께 하모니카 연주로 '공양'

우리지역 부부니혼자  
지장암 주지 서경 스님

"이제는 사람에서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악기를 배우게 되었다"

서경 스님(사진)은 하모니카 연주가로 알려져 있다.

스님의 하모니카에는 광주 양동시장에서 직접 맞추었다는 국방색 무늬로 만들어진 하모니카집이 있다. 거기에 하모니카 20여개가 꽂아져 있다.

"이게 전부 각기 소리를 낸다. 사람 소리로 치면 '음의 높이'이죠." 하모니카에도 각기 음의 높이가 있어, 노래에 맞춰 연주를 한다.

스님은 아직 악보를 볼 줄 모른다. 전부 음을 듣고, 음에 맞추어 즉석에서 연주를 한다. 하지만 어느 전문 연주가도 "서경 스님의 음악적 감각을 쉽게 따라올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스님은 원래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에는 재능이 없었다.

여느 스님들처럼 선방에서 안거하고, 기도하는 삶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연주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연주를 한다. 강화 선원사 연꽃축제, 나주시 한여름 밤의 음악회, 각 마을 노인정, 사찰음악회 등 지금도 많은 곳에서 스님을 요청한다.

하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곳이 바로 사찰근처의 마을 노인정이다. 이곳 주지의 소임으로 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절에는 오지 않던 시골 노인들이, 공연한번으로 '우리 스님 최고'의 이야기를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스님은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었다.

"도대체 이런 반응은 무엇일까?"

그 후 서경 스님은 공연 후 반드시 재미있는 법문을 써서 이야기를 해준다.

노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스님은 "저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이다. 삶의 특별한 재미가 없는 노인들을 정말 즐겁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스님이 하모니카 연주를 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서경 스님은 악기연주 공부를 시작했다.

"처음 악기를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어려운 악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나이가 먹어 시작하니 도저히 그들을 따라갈 수 없었죠. 그래서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았고, 그것이 하모니카였죠."

스님의 공연에는 찬불가, 유행가, 클래식 등 많은 장르가 연주된다.

매년 10월이 되면 지장암에서는 소박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저희 사찰음악회는 문화포교입니다." 지역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스님들과 신도들이 만드는 작은 무대이다.

스님은 "앞으로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는 스님들과 같이 그룹사운드를 구성하고 싶다. 그리고 음악과 어울리는 불교연극도 해보고 싶다"고 말한다.

새로운 문화포교를 개척하는 서경 스님에게서 한국불교의 새로운 포교 방법들을 벤치마킹해 보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 완주 송광사, 백련 산사음악회 개최

전북 완주 송광사(주지 도영)는 8월 29일 '송광사 백련축제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음악회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선운사 주지 법만 스님 등 지역의 스님들과 김경업 완주군수, 송하진 전주시장 등 사부대중 3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범우 스님(대전무현문화제 15회)의 승무와 정태준, 강산에, 신형원, 가아람 등의 인기가수와 김준모씨가 지도하는 한국식 오키나와 공연으로 늦여름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겼다.



8월 29일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백련축제 산사음악회.

이밖에도 경내주변에서는 연꽃 사진작가로 유명한 성호 스님의 연꽃사진전과 백련축차 시음회, 백련음식 시식회와 연제(연자) 나눔행사가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송광사는 예전부

터 연꽃을 상징하는 백련사로 불리웠다"며 "이번 산사음악회를 통해 지역민과 유대를 강화하면서, 봄에는 벚꽃과 철쭉축제, 여름에는 연꽃축제와 템플스테이를 통해 송광사를 널리 알리는데 주력하는 한편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 키워가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송광사 옆에 조성하기 시작한 송광사 백련지는 약 6000평의 부지에 백련, 홍련, 홍백련, 청백련, 황련 등 다양한 종류의 연꽃을 심어 주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보는 명소로 부각되어 가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특별한 날' 특별한 성지순례

### 150회 맞은 BTN, 김제 금산사서 개최

2001년 선운사 도솔암을 시작으로 약 8년 동안 진행했던 BTN 성지순례가 150회를 맞아 '특별한 날 특별한 성지순례'를 마련해 지난 29일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에서 150번째 성지순례를 개최했다.

400여 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금산사 성지순례는 사시 기도 후 금산사 원행 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원행 스님은 "마음속의 극락 즉 서방정토를 찾는 것은 우리의 본원력"이라며 "문수, 보현, 관음, 지장, 미륵보살의 성자들

찾아 구도자로서 순례자로서 불도를 완만히 성취하시길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BTN 성지순례단 불자들을 위해 법문하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팔 우승택씨의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이라는 주제의 특별한 강의를 개최했다. 성지순례단은 금산사 참배 후 전주시에 소재한 경기전(사적 제339호, 조선시대)으로 이동해 한옥마을 투어를 진행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한옥마을을 방문한 성지순례단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증정하고 150번째 성지순례를 축하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BTN 성지순례단 불자들을 위해 법문하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사찰, 법당 영상음향 설비공사

### 음향설비 렌탈·각종 마이크·스피커·앰프 설치·찬불가 반주기 설치 (550곡수록)

휴대용 충전식(방생) 유무선 마이크 겸용 포터블 앰프 시스템

무선마이크

사찰 하이파이 앰프

투윈 미디어 방송·음향·영상설비전문업체  
Twin Media www.twinsound.co.kr

서울 종로구 종로3가 175-4 세운상가 가동 107호 代表 최유정  
Tel 02)2265-4288, 2275-8079  
Fax 02)2275-1242 H·P 010-8705-4288

고객님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완벽한 A/S보장 · 100% 원물보장

## 불경 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금강 불교미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성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얻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 108염주 단주  
흑단목염주 / 흑단목염주  
크기 : 8mm x 10mm x 12mm 55,000원  
10mm x 10mm x 12mm 65,000원  
12mm x 10mm x 12mm 85,000원  
흑단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흑단목포대화상향로  
(대) 26 x 16 x 16cm 135,000원 - 향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안을 마음껏 나누어 주며 일석이조의 행이 행어 저니와 예쁠시에도 사용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양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행영

###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얇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 열침의 효능 금강약들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들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물인 금강약들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들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94개의 금강약들 육각불이 80°C이상의 고열이 발생되어 작용성 벵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을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적용하며 관절염, 근육통, 허리통증, 관절염,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염,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 이끼결림, 고혈압, 전립선염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 차가운 ◆오심, 구역,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에게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님께서 체현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온열복대 의료기기개발센터  
건강식품 안전인증, LG 배상보증 가입  
전자파 장애실험  
전자파 환경인증  
실용실험인증

허리에 차가운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해주는 온열복대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썩음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하여 있어 썩음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의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썩음(고열 60°C)보다 높은 고열(80°C)의 원적외선 "열침"이 벵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썩음을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 배, 허리통증, 발바닥은열지않,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은 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한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들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양과 질병명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행영 / 일일당 1000원도 받습니다.